

성경적 전도방법을 미리 보여준 성령행전

- 복음으로 여는 사도행전 -

이사야 60:1-5, 사도행전 1:8

정윤돈 목사님

“잔지전능하셔서 우주 만물을 말씀 한 마디로 창조하시고 또, 그 가운데 오직 우리 인간만 하나님의 형상 가진 영적인 존재로 창조하셔서 주님과 함께 할 때 행복하고, 예배하고 기도하고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 천국에서 살 수 있는 축복 주신 것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비록 우리 인간이 사탄에게 속아 죄를 짓고 이 땅에서 오만가지 고통을 당하다가 지옥 갈 수밖에 없었지만 그리스도를 통해서 다시 모든 것을 화복해주시고 모든 문제 해결해주시고 전도와 선교에 우리 생을 드릴 수 있는 마음 주신 것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반드시 모든 성도들이 강단메시지의 제자가 되어서 다시 12가지 문제 속으로 빠져들지 않게 하시고 24시간 복음을 누리다가, 기도하다가,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 받다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의 축복을 누릴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증거되는 이 말씀이 우리 삶 속에 그대로 성취되고 열매 맺을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성령충만을 받고 성령인도를 받는 것이 신앙생활의 모든 것이다. 하나님께서 오순절 날 마가다택방에 역사하신 것처럼 역사하실 때 아시아서 60장처럼 전 세계를 향하여 빛을 발할 수 있고, 전 세계를 치유하는 역사가 일어날 것이고, 또한 전 세계의 부가 몰려오고, 우리 후대가 세계를 복음화하고 세계를 왕대 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3사밋의 응답을 받게 될 것이다. 그렇다면 언제 성령께서 역사하시는가? 사도행전에 보면 그것은 하나님의 시간표에 달려 있다. 그래서 우리는 언약을 붙잡고 조금하지 말고 믿고 기다리면 된다. 모세는 40년 기다렸다. 광야생활도 40년 하였다. 청년들에게 이런 이야기를 한다. “예수 믿고 40년만 참아라.” 1, 2년 참다가 불산양하면 다시 시작된다. 하나님의 응답이나 고난, 어려움은 같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는 몇 십년 몇 백년이 잠시이다. 그런데 여러분이 이것을 뛰어넘을 수 있는 방법은 오늘 완전 믿음 속으로 들어가는 것이다. 그때부터 하나님이 역사하시기 시작한다. 우리의 힘으로 참고 기다려서는 안 된다. 참는 것이 아니라 불산양, 안 믿는 것이다. 하나님은 그것을 아신다.

오늘은 사도행전을 중심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고자 한다. 사도행전은 누가가 데오빌로 각하게 보내 두 번째 편지이다. 사도행전은 초대교회가 어떻게 예루살렘에서 소아시아와 그리스를 지나 결국은 로마까지 복음이 증거 되었는가에 대해 기록한 역사서이며, 전도기행문의 문학적인 형식을 가지고 있는 성경이다. 그런데 사도행전은 이러한 기록문의 역할을 뛰어넘어, 성령께서 역사하신 성경적인 전도방법의 모델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다.

1. 첫 번째로, 사도행전에 기록된 시간과 인물들 속에서 불산양 상태 6가지를 찾아보고자 한다. 하나님을 떠난 인간들과 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지 못하는 사람들은 모두가 이 불산양 상태 6가지와 싸우며 이 땅에서 살아갈 수밖에 없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승리할 수 있는 삶의 기준, 수준, 표준이 되는 하나님의 말씀을 주셨고, 그것도 행할 능력이 없기 때문에 그리스도와 성령께서 오신 것이다. 하나님 떠난 인간들이 직면하는 불산양 상태 6가지 문제는 첫 번째로, 근본문제(창세기 3장 문제)인 불산양, 죄, 사탄이고, 두 번째 문제는 영적문제, 세 번째 문제는 정신(마음, 생각)문제, 네 번째는 육신문제, 다섯 번째는 내세문제(지옥문제), 여섯 번째는 후대문제이다. 사실 우리가 당하는 문제는 다섯 가지이다. 이 모든 문제는 하나님을 떠났다

는 근본문제에서 시작된 것이다. 근본문제는 원죄라고도 한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여 원죄에 빠지게 되었다. 우리가 불산양했으니까 사탄에게 속았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 창세기 3장의 근본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순종해야 한다. 교회는 예배와 찬양도 중요하지만 순종을 배우는 곳이다. 맹신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을 가지고 의미를 알고 머리 보는 사람만이 따를 수 있는 것이다. 그러려면 언약과 성령충만이 있어야지 의미 있는 순종을 할 수 있다. 근본문제에 빠져있는 사람은 예수님이 하나님이신, 천국과 지옥, 부활, 사탄, 오직 예수가 믿어지지 않는다. 영적인 문제의 정치는 사탄에게 완전히 잡혀있는 상태이다. 생각과 마음에 문제가 생기면 사탄에게 잡히게 되는 것이다. 그래서 성령의 열매로 치유 받아야 한다. 내 안에 이러한 부분을 발견하고 싸워야 한다. 그 방법이 강단메시지이다. 대표적인 영적문제는 우상 섬기는 것이다. 운명, 사주, 팔자에 잡히게 되고 중독, 알콜, 음란, 도박, 스마트폰에 중독된다. 중독된 사람의 특징은 자기 자신밖에 몰라 고집하게 된다. 정신문제는 마음과 생각의 문제이다. 정신문제가 심해지면 모든 영적인 문제와 육신문제로 파져나간다. 우울증, 건강염려증, 히스테리, 반사회성, 경조증, 사회적 내향성, 이런 것들이 정신문제이다. 불안하고 조금하고 남의 것을 탐하고 거짓말하게 된다. 육신문제로는 가정이 파괴되고, 분열된다. 원인도 알지 못하는 질병들이 온다. 계속 가난하고, 돈에 매이고, 이유 없이 몸이 아프다. 확실하게 복음을 붙잡지 못하면 이 길을 걷게 된다. 그러다가 내세문제가 찾아온다. 삶이 지옥이 된다. 죽음이 두렵게 된다. 그리고 후대문제이다. 자녀의 탈선, 타락, 자수와 재앙이 몰려진다. 부모의 나쁜 습관들을 그대로 자녀들이 배운다.

(1) 사도행전 3장 1절에서 26절을 보면, ‘나면서 못 걷게 된 앉은뱅이를 치유하는 장면이 기록되어 있다. 사도행전 3장 2절이다. ‘나면서 못 걷게 된 이를 사람들이 메고 오니 이는 성전에 들어가는 사람들에게 구걸하기 위하여 날마다 미문이라는 성전 문에 두는 자라’ 여기서 우리는 불산양 상태를 찾아볼 수 있다. 근본문제로는, 그는 날마다 성전미문에 앉아있었지만 정확한 복음을 들어 본적이 없었다. 그리고 구걸하면서 살면 인간의 영혼이 파괴된다. 이것이 영적문제이다. 그래서 그는 정신문제, 육신문제도 삶이 지옥 같았을 것이다. 결혼과 후대는 기대할 수도 없는 상황이었다. 그런데 그 사람에게 베드로는 답을 주고 그를 치유해 주었다. 사도행전 3장 6절이다.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늘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고’ 지금 현장에는 이렇게 앉은뱅이처럼 살아가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다. 그런 사람들을 어떻게 도와 줄 수 있을까? 그 방법은 베드로처럼 내가 먼저 그리스도로 답을 얻고 결론을 내렸을 때 우리도 베드로처럼 쓰임 받을 수 있을 것이다.

(2) 유대의 종교지도자들은 그리스도의 부활을 보고도 믿지 않았고 부활의 복음을 전하는 사도들을 욕에 가두고 협박했다. 사도행전 4장 1절에서 3절을 보겠다. ‘사도들이 백성에게 말할 때에 제사장들과 성전 맡은 자와 사두개인들이 이르러 예수 안에 죽은 자의 부활이 있다고 백성을 가르치고 전함을 싫어하여 그들을 잡으매 날이 이미 저물었으므로 이튿날까지 가두었으나 유대인 지도자들은 부활을 가르치는 것을 싫어했으며, 부활의 증거가 있지만 믿지 않았다. 이렇게 불산양상태의 영적문제에 빠져 있는 유대지도자들에게 베드로는 담대하게 말씀하였다. 사도행전 4장 12절이다. ‘다른 이로써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3) 사도행전 5장 1절에서 11절에 보면, 야나니와 삽바라 부부는 하나님이 명하신 교회에 대한 헌신과 사명보다 돈과 부부를 더 따르는 영적인 문제를 가지고 있었다.

(4) 완전복음을 알기 전 사도 바울은 율법주의에 빠져 스데반 집사를 죽이는데 가담을 하였다. 사도행전 8장 1절의 말씀을 보면, ‘사울은 그(스데반)가 죽임 당함을 마땅히 여기더라’고 기록되어 있다. 율법주의에 빠진 사람은 ‘저런 사람은 죽어야 해, 죽어도 마땅해’ 이런 생각을 가진다. 내 아념, 사상

이 옳다고 생각하면 다른 사람은 죽어도 마땅하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복음 있는 다윗은 자신을 죽이려고 하는 사울도 기름부음을 받은 자라 죽이지 않았다. 언약을 붙잡은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말씀, 기도, 성령충만해야 한다.

(5) 사도행전 13장에 보면, 사도 바울팀이 구브로의 바보라는 지역에서 만난 마술사 엘루마는 총독 서기오 바울에게 가진 산자자 즉, 점쟁이의 역할을 하고 있었다. 지금도 권력자, 사업가들과 정치인들 앞에는 점쟁이들이 붙어있는 경우가 많다고 한다. 사도행전 13장 6절에서 8절 말씀이다. ‘은 섬 가운데로 지나서 바보에 이르러 바에수라 하는 유대인 거짓 산자자인 마술사를 만나니 그가 총독 서기오 바울과 함께 있으니 서기오 바울은 지혜 있는 사람이라 바나비와 사울을 불러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더라 이 마술사 엘루마는 (이 이름을 번역하면 마술사라) 그들을 대적하여 총독으로 믿지 못하게 함스니 눈속임을 위해서 즐겁게 하는 정도가 아니라 사람들과 백성에게 자신이 능력 있는 것처럼 속이는 것이다.

(6) 사도행전 16장에 보면, 사도 바울은 빌립보에서 ‘점치는 귀신들린 여종을 만났다. 사도행전 16장 16절이다. ‘우리가 기도하는 곳에 가다가 점치는 귀신 들린 여종 하나를 만나니 점으로 그 주인들에게 큰 이익을 주는 자라 불신자 상태를 말하고 있는 것이다.

(7) 사도행전 19장에 보면, 에베소에는 아데미 신과 각종 무속, 점술, 우상의 문화가 가득하였다. 그들이 복음을 받아들이고 후 마술 책들을 불살랐는데 그 양이 은 오만이나 되었다. 사도행전 19장 19절을 보겠다. ‘또 마술을 행하던 많은 사람이 그 책을 모아 가지고 와서 모든 사람 앞에서 불사르니 그 책값을 계산한즉 은 오만이나 되더라 지금도 문제 생기면 교회다니는 분들도 점보러 간다. 우리는 왜 점칠 필요가 없는가. 나에게 알아나는 모든 것은 하나님의 절대계획이다. 말씀 속에서 그것을 물어봐야 한다. 미래가 불안해지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무엇입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믿기 때문이다. 이 사건을 보고 분노한 에베소 사람들은 두 시간동안이나 ‘에베소 사람의 아데미여라고 외쳤다. 사도행전 19장 34절에서 35절을 보겠다. ‘그들은 그가 유대인인 줄 알고 다 한 소리로 외쳐 이르되 크다 에베소 사람의 아데미여 하기를 두 시간이나 하더니 서기관이 무리를 진정시키고 이르되 에베소 사람들아 에베소 시가 큰 아데미와 제우스에게서 내려온 우상의 신전자가 된 줄을 누가 알지 못하겠느냐 두 시간 동안 소리치르기 쉽지 않다. 무속, 점술, 우상에 얼마나 깊이 빠져있으면 위협을 느끼고 소리를 지르겠는가.

2. 그렇다면 바울 팀을 이러한 한성들에서 어떻게 복음을 증거 했을까? 두 번째로 사도 바울팀이 불신자상태 67지 속에 빠져 있는 한성에서 행했던 성경적인 전도방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방법은 다락방, 탐사역, 미션홈, 전문사역, 지교회였다. 지교회 사역은 미리 보고, 찾고, 누리고, 정복하고, 성취하는 것이다. 다락방은 불신자를 양육하는 것이고, 지교회는 내가 미리 보고, ‘저 사람을 전도해야겠다.’ 생각하는 것이 지교회의 시작이다.

(1) 다락방이란, 오직 예수 때문에 모인 사람들의 모임이고 오직 복음만 증거하는 말씀운동, 기도운동, 전도운동을 의미한다. 우리들이 다락방 전도운동이라고 이름을 붙인 이유는 마가다락방에 모인 분들이 오직 예수 때문에 모인 사람들이었기 때문이다. 즉, 우리도 그들이 겹쳤던 오직 예수라는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것이다.

(2) 두 번째는 탐사역이다. 사도행전 13장 1절에서 3절에 사도 바울은 팀으로 파송되었고 항상 팀으로 전도캠프를 하였고 선교현장으로 가서 팀형성을 위한 만남의 응답부터 받았다. 이 팀의 응답도 성령의 인도 따라 순종하며다가 만남의 축복을 받아 형성되었다. 탐사역은 상담, 치유, 대화를 하는 것을 말하고, 탐사역 전도는 팀이 되어 현장에 문을 여는 것을 말한다.

(3) 사도행전에는 미션홈의 흐름이 있다. 마가의 다락방도 미션홈이었다. 그 미션홈이 나중에는 예루살렘교회가 되었다. 사도행전 16장 15절에 기록된 루다의 집이 빌립보교회가 되었다. ‘그와 그 집이 다 세례를 받고 우리에게

창하여 이르되 만일 나를 주 믿는 자로 알거든 내 집에 들어와 유하라 하고 강령하여 머물게 하니라 17장에 아논의 집이 데살로니가교회가 되었다. 28장에는 바울이 셋잡에서 제자들을 모아 놓고 미션홈 사역을 했는데 로마교회가 되었다. 가정에서 제자화시키는 것은 로마도, 공산당도, 코리도 막을 수 없다.

(4) 네 번째 방법은 전문사역과 전문교회이다. 사도행전 18장 3절에 ‘생업이 같으므로’ 나온다. 브리스갈라 아톨라 부부와 사도 바울이 만났는데 생업 전문성이 같았던 것이다. 그 전문성과 현장이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알고 전도현장으로 만들어야 한다. 그래야지 하나님이 역사하신다. 누가는 데오빌로는 공무원 엘리트 전문사역을 하다가 사도행전이라는 작품을 남기게 되었다. 두란노서원에서 제자들을 따로 세워 놓고 집중사역을 했는데 에베소와 아시아 전체에 교회를 세우는 전도운동이 폭발적으로 일어났다. 사도행전 19장 8절에서 10절이다. ‘바울이 회당에 들어가 석 달 동안 담대히 하나님 나라에 관하여 강론하며 권면하되 어떤 사람들은 마음이 굳어 순종하지 않고 무리 앞에서 이 도를 비방하거늘 바울이 그들을 떠나 제자들을 따로 세우고 두란노서원에서 날마다 강론하니라 두 해 동안 이같이 하니 아시아에 사는 자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주의 말씀을 듣더라 이것이 집중전도신학원이고 RTS, RU 등의 신학교육이다. 나중에는 참사랑교회 자체 집중전도신학원을 하려고 한다. 평신도와 중직자도 강사로 세우려고 한다. 전문사역은 회당, 서원, 자지로 들어가 하는 전문사역, 램프사역, 집중사역, 서밋사역, 산업선교가 모두 포함된 사역이다.

(5) 다음은 지교회이다. 바울이 에베소에 가서 복음을 전했는데 아시아 7교회가 세워졌다. 마케도니아와 아가사와 로마에도 다락방, 탐사역, 미션홈 사역을 통하여 지교회를 설립했는데 나중에는 그 지역을 대표하는 로컬지역교회로 세워졌다. 시작은 우리 가정에서 시작되었다. 최초의 교회가 가정에서 시작된 경우가 많다. 사도 바울은 이런 한 사람을 세워져 다락방, 미션홈, 전문사역을 하다가 지역을 살리는 지교회와 전도의 대역사를 이루었던 것이다.

말씀을 마무리하고자 한다. 그렇다면 사도행전에 등장한 인물들은 어떻게 성경적인 전도운동을 통해 불신자상태 빠진 현장에서 복음운동, 그리스도운동을 할 수 있었을까?

(1) 영력이다. 다락방운동을 지속할 만큼 오직 예수의 영으로 충만하였다. 즉, 오직 1, 3, 8을 누린 것이다.

(2) 지력이다. 그들은 세계복음화를 이끌 엘리트 팀이 따를 정도로 말씀과 복음에 대한 이해와 지식이 충만하였다.

(3) 체력이다. 영혼이 잘됨같이 범사에 잘되고 강건한 모습을 통해 땅 끝까지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었다. 사도 바울은 많은 병이 있었지만 그 육신의 연약함이 천명, 소명, 사명을 막을 수 없었다.

(4) 경제력이다. 항상 부족한 것 같았지만 하나님께서는 예비해두신 제자들을 통해서 부족함이 없는 경제의 응답을 주셨다.

(5) 인력이다. 전도운동에 올인하자 현장을 돌아와, 올체인지할 제자들과의 만남을 주셨다.

이번 한주간도 사도행전의 제자들처럼 12가지 불신자 상태에서 고통당하고 있는 가족과 친구들과 이웃을 지속적으로 살려낼 수 있는 5가지 성경적 전도운동의 시스템의 응답을 체험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사랑의 주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다시 한 번 사도행전을 통해서 현장을 보게 하시고, 우리가 해야 할 역할이 무엇인지 발견할 수 있는 축복 주신 것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반드시 이 응답을 받아 지역과 민족과 세계 살릴 수 있는 주역으로 쓰임 받을 수 있는 모든 성도들과 후대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드립니다. 아멘”